



15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해 화정4거리 교통신호등이 작동을 멈추자 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통행을 유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요예측 잘못, 발전기 많이 늘렸다

9월 폭염 정전대란 왜

전국 발전기 25개 정비 고장 사상 첫 지역별 제한 송전

늦더위 여파로 전력 과부하 현상이 발생,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15일 오후 들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력예비율이 급격히 낮아졌고, 단계적으로 부하를 차단하면서 정전이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정전 사태는 정부 당국이 전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발전소 가동을 많이 멈춘 것으로 드러나 시민 불편과 산업 피해를 유발한 데 대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90만 가구가 정전을 겪고, 은행업무가 차질을 빚는 등 하루 휴대전화도 한때 먹통이 되는 일도 생겼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정전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오후 3

시부터 30분 단위로 지역별 순환정전(단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력 수요가 예측치를 크게 웃돌게 되면서 과부하를 막고 예비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단전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전력공급능력이 떨어진 것은 하절기 전력수급기간(6월27일~9월9일)을 지난 상태에서 발전기 계획예방정비(834만kW)가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전력거래소는 해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오늘 전력피크로 6400만kW의 수요를 예상했지만 6726만kW가 몰렸다”면서 “여름철이 다 지났기 때문에 겨울철에 대비해 정비에 들어가 발전소가 많았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몰렸다”고 말했다.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고 ‘정비’를 명분으로 발전소를 많이 늘렸다가

큰 피해를 불러온 것이다. 이날 오후 현재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 모든 발전기를 통틀어 고장 기수가 2개, 예방정비 기수는 23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이처럼 오후 3시를 기해 전력예비율이 안정 수준인 400만kW 이하로 떨어지자 95만kW의 자율발전과 89만kW의 직접부하제어를 시행했고, 지역별 순환정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역별 순환정전은 이들 두 가지 조치로 예비력 400만kW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사전 작정된 매뉴얼에 따라 지역별 전력공급에 차단을 하는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제한 송전을 의미하는 이런 조치를 단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발전기 갖춘 대기업 피해 ‘미미’... 中企는 큰 타격

15일 전국을 강타한 정전 사태로 주요 기업들도 불편을 겪었지만 다행히 가동 중단과 같은 심각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일관공정이 중단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는 광양·여수지역 제철·석유화학 업체들은 정전에 대비해 자체 비상발전 시스템을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광주 하남산단 등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런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피해를 봤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전 공장 휴무에 들어갔고 일부 공장에서 야간 특근만 진행되는 데다 정전이 발생해도 공장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여수 국가산단에 대규모 공장을 둔 GS칼텍스 등 정유업체와 LG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화학업체는 아직 별다른 정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지방 산단의 경우 대규모 정전이 생겨도 단지에 오는 전기가 가장 나중에 차단될 정도로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정전이 빨리 해결되면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만약 정전이 발생하면 공장 설비를 망칠 수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한전에서 오는 전기 공급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예비 발전기를 설치해 놓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업체에서는 일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점점 건물은 정전이 되자 비상 전력을 사용했지만 일부 조명이 꺼진 채 영업하다 30~40분 만에 복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동기기자 exian@kwangju.co.kr

수영장-남부대, 다목적체육관-광주여대, 양궁장-조선대

남구에 ‘생활형체육관’ 별도 건립

광주U대회 경기장 부지 확정... 강시장 “논쟁 그만, 성공 개최 힘모아야”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의 신설 경기장인 수영장은 남부대, 다목적체육관은 광주여대, 양궁장은 조선대에 건립된다. 광주시는 입지 선정 용역, 시민공청회, 도시균형발전위원회 3차례 심의를 통해 제시된 이 같은 안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및 신설경기장 입지 승인, 대학 측과 운영·관리와 관련된 협약 체결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용역결과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 경기장 부지를 결정했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모적인 논쟁 더 이상 안 돼”> 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지금의 광주는 얼음이 얼어 있는 것과 같이 조금만 잘못 밟을 땀겨 되면 곧 물에 빠진다”며 “이제 막 광주

라는 비행기가 상공을 향해 올라가는 상황이며, 앞으로 2년 정도 참으면 고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표현은 올 상반기 내내 지역의 핫 이슈가 돼 버린 광주U대회 신설 경기장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자칫 민선 5기의 최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 입지 결정에 대한 미숙한 행정, 일부 정치인의 소지여주의 및 성과 중시 등에, 일부 지역주민의 시위나 성명서 발표 등이 가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는 상관 없이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20분 안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광주라는 공동체가 모두 함께 이들 시설을 영유하는 것”이라며 “우리 구가 아니면 된다는 생각 버리고 모두 하나가 돼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들 신설경기장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 30년간 이를 소유할 예정이다. 대학교 교지에 대한 부동산 권리의 변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남구엔 150억 규모 체육시설 내년 착공”> 강 시장은 이번 입지 논란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체육시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미흡한 남구에 대해서는 내년엔 당장 국비 40억원과 시비 40억원, 구비 일부 등을 더해 공사에 들어가 2년 뒤 준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광주에서 남구에 체육시설을 새로 지어주는 것이 맞다”며 “남구가 희망한 대로 생활형체육관 체육관으로 실내 체육관, 수영장 등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 R&D 투자도 광주·전남 소외”

민주당 김재균 의원 분석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반면 광주·전남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이 15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기획한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한 과제 선정내용(과제건수 7022건, 총예산 6조3099억원)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인천에 4038건에 3조295억원(52%)이 지원됐다. 대전에는 1048건에 1조900억원(17%)이 지원됐다. 반면 광주는 107건에 1084억원(1.7%)이 지원돼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전남은 70건에 190억원(0.30%)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6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에 의해 호남권이 신재생에너지산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음에도 연구개발투자는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분야 연구개발투자를 전담

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과제 선정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과제 선정 내역 2856건 가

운데 광주는 38건(1.33%), 전남 22건(0.77%) 전북 40건(1.40%)에 불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만금 관광레저 특화벨트 한중 문화체험 본격화!!

100만 인구가 상주할 새만금 최고의 명품 상록 펜션 단지 및 전원주택 분양

VISON “명품 새만금 휴먼·녹색·글로벌 도시”

대한 투자진흥공사(KOTRA)잠재 투자를 발굴 수익 모델 제시 한중문화체험 교류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등이 들어선다.

분양평수 ■ 120평~320평 까지
■ 130만원~180만원 까지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 상록해수욕장 위치

노다지 펜션의 장점

- 내빈산 최고의 경관
- 모든 인허가 완료
- 17,000㎡(약5,000평) 26필지
- 전단지 전담함
- 전원생활 별장유치로 최고
- 모든 기반시설 완료

상록해수욕장

노다지 (주)노다지건설 분양문의 063-583-4334
www.nodage.co.kr